금리 상승세 확대…보험 해약률 급증

상해·질병 개인연금 등 해약…보험사 수익 악화 우려

2014년 상반기 80조원…지난해 119조원으로 48%↑

금리 상승세가 확대되며 보험계약 해약률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6년5개월 만에 인상하고, 미국도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이 14일 발표한 '금리 상승과 보유계약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2.0%일 때 2.5~3.0%이던 보험계약(생보·손보) 해약률은 국고채 금리가 3.0~4.0%로 상승하자 3.0~6.0%까지 올랐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부채부담 가중이 보험계약 해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DSR)은 2014년 11.2%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가계의 부채부담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2016년 12.0%, 지난해 12.6%로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이 기간 보험계약 해약률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손해보험의 해약금은 2014년 상반기 평균 80조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평균 119조원으로 48%(39조원) 증가했다. 주로 장기손해 상해·질병, 저축성보험, 개인연금 등에서 해약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의 해약금은 58조원에서 59조원으로 1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계약해지 건수는 2014년 575만건에서 2016년 659만건으로 14.6% 증가했다.

문제는 해약금액 증가율과 보험사의 자기자본이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보험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보험사의 해약률이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보험사는 보유계약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KT, 우리는 성화봉송 주자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성화봉송 주자 황창기 KT회장, 사격 국가대표 진종오, 드론 세계챔피언 김민환 선수, KT 신입사원 이청환 배인혁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유치 시동

여수광양항만공사, 20일까지 中중남부 지역서 투자자 모집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는 14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중남부 지역에서 광양항 배후단지의 투자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투자유치 활동은 방희석 사장이 중국 현지의 투자의향 기업을 방문해 광양항 및 배후단지의 장점 등을 소개하고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 사장은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푸드존(Food-Zone)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 운남성 소재 커피 원재료 공급업체인 운남허메이격치(주)를 방문해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한·중·일 콜드체인 거점 구축을 위해 중국 안후이성 소재 냉동냉장창고 업체인 바이란식품㈜을 방문해 투자협약을 맺는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광양경제청은 지난해 9월 중국지역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투자의향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실질적 투자 유치를 기대하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방 사장은 "광양항 배후단지에 대한 실질적 투자유치를 이끌기 위해 공사와 경제청이 중국을 찾아 기업들을 방문하게 된다"면서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푸드존(Food-Zone)에 중국기업의 입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호영 기자

중진공 광주본부

중소기업 '저리' 정책자금 1800억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정책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와 나주시, 장성·화순·담양·함평·영광군 등 7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시중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연 2.0~3.35%의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광주지역본부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1809억원 수준으로, 창업기업 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신시장 진출지원자금, 재도약 지원자금, 투융자복합 금융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 정책자금 지원체계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창출기업과 미래신성장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진공은 올해부터 정책자금 중복지원을 줄이고 보다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와 연계 지원하는 '정책자금 첫 걸음 기업' 지원제도를 신설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 예산의 60% 이상을 신규기업에게 배정·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자가진단·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062-600-3000)로 하면 된다. /공성남 기자

'중국 화동 교역회' 참가기업 광주상의, 23일까지 모집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18 중국 화동(華東) 수출입상품 교역회' 한국관 참가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28회째를 맞는 중국 화동 수출입상품 교역회는 상하이(上海)에서 매년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박람회로 오는 3월1일부터 4일까지 상하이 신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 상하이시, 절강성 등 9개 성·시 자치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생활소비품, 공예품, 의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과 선물용품 등이 전시된다.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참가해 자사 제품 전시, 참가바이어들과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900여 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세계 각지에서 약 2만3000명의 바이어와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박람회 참가기업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됐다.

박람회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광주상의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박람회 부스 임차료의 80%와 참가자 항공료 70%(최근 3년 이내 참가기업은 50%), 바이어 상담을 위한 통역료 100%, 편도 물품 운송료 100% 등을 지원받게 된다.

참가 희망 기업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춘의 기자

작년 코스닥 IPO 공모액 3조5천억…'사상 최대'

1개사당 평균 공모자금 조달규모 476억5000만원

지난해 코스닥시장의 기업공개(IPO) 공모액이 3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공모는 74건, 3조52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97년 코스닥시장이 개설된 이후 최대규모로 2010년 1조3898억원(74개)을 넘어선 것이다.

1개사당 평균 공모자금 조달규모는 476억5000만원었다. 특히 CTK코스메틱스(1100억원), 스튜디오드래곤(2100억원), 티슈진(,025억원), 펄어비스(1854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1조88억원), 제일홀딩스(4219억원)등은 1000억원 이상 공모에 성공했다.

기업별 공모규모를 살펴보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제일홀딩스가 각각 1조 88억원, 4219억원으로 1999년 최대치인 아시아나항공(3750억원)을 뛰어 넘으며 역대 최대 공모순위를 갱신했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99개사로 전년(82개사) 대비 20.7% 증가했다. 일반기업은 70개사에서 79개사로 늘었고, 스팩은 12개에서 20개로 증가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살펴보면 제일홀딩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초우량·초대형 기업의 상장이 두드러졌다.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기업의 신규상장도 1개사에서 4개사로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이 중소·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대형·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창구 역할도 수행하며 안정적인 자본시장 기반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테슬라 1호 기업의 심사 승인이 이뤄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거래소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 우량기업의 상장 지원을 위해 도입한 '테슬라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심사를 청구한 카페24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카페24㈜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쇼핑몰 운영에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회사로 지속적인 투자로 2016년까지 적자였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 흑자 전환했다. 카페24는 오는 2월께 상장될 전망이며, 공모자금은 결제·물류 등 성장성이 높은 시너지 사업 투자,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기술성장 특례상장은 7개사로 청구기업수(15개사)가 감소하면서 2016년(10개)보다 줄었다. /뉴시스

"가격표시 꼼수 안돼요"…설 앞두고 정부 실태 점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 33㎡(대도시 17㎡) 이상 소매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크게 판매가격 표시와 단위가격((10g당, 10ml당, 개 등) 표시로 나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아울렛, 편의점, 전통시장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모두 가격표시제를 지켜야 한다.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어겨서도 안된다. 가전제품과 의류 등 47개 품목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제조업자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는 가격)를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관계부처(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설 제수품목, 생필품, 가공식품 외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실태 조사에서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완구용품점·악기소매점·운동용품점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당시 81곳 중 22곳(27.2%)만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에 지도와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되, 위반 소매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벌여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뉴시스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판매기피 단속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인상에 뒤따르는 가격인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다.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매월 반출량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 도매업자·소매인의 경우 총 매입량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다.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점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 간이며, 대상은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도·소매업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수입업체 보관창고와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인소득 과세' CD 제작

광주국세청, 소득 신고·납부 방법 등 설명

광주지방국세청은 12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해 '종교인소득 신고 방법'을 CD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도입으로 종교단체는 올해 1월분 종교인소득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다수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경험이 없어 처음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설명서를 제작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CD를 자체 제작해 오는 15일부터 주요 종교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CD에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안내와 함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담았다.

퇴직자 10명 중 8명, 퇴직금 1천만원 못 받아

국세통계연보, 퇴직금 1억원 이하 근로자 97.5%

퇴직자 10명 중 약 8명은 퇴직금으로 1000만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에 260만3596명의 근로자가 퇴직했다. 이 가운데 퇴직급여로 1000만원 이하를 받은 근로자는 202만5547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77.9%를 차지했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30만5563명,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3만7637명이었다.

퇴직급여로 1억원을 넘게 받는 근로자는 6만254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4%를 차지했다.

퇴직급여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만6682명,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만3472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9000명이었다. 5억원 넘게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3386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 퇴직자의 1인당 퇴직금이 평균 27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이상 퇴직자가 1655만원, 30대 이상은 107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은 896만원, 30세 미만은 448만원 이었다.

퇴직자 중 상당수가 1000만원을 밑도는 퇴직금을 받은 이유는 근속 연수가 점점 짧아진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6년 기준,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2016년에 3만2453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1.2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5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196만3360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75.4%를 차지했다. 5년 이상~10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47만8453명(18.3%)이었다. /뉴시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